

농촌 작업복 착용실태 및 선호도 연구

나승정⁰, 강하은*, 김은우*, 김윤재*, 문세라*, 차수정*

⁰국립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

*국립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

e-mail: nsj003689@naver.com⁰, carollain@mnu.ac.kr*

Study of Rural Workwear Practices and Preferences

Seung-Jong Na⁰, Ha-Eun Kang*, Eun-Woo Kim*, Yoon-Jae Kim*, Se-Ra Moon*, Su-Joung Cha*

⁰Dept. of Fashion and Cloth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ashion and Cloth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 요약 ●

본 연구는 농업 작업능률 향상에 적합한 작업복 개발을 위해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복 착용실태 및 선호도, 필요 기능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촌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촌 작업복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추출하고자 한다. 작업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작업복 미착용 시는 트레이닝복이나 아웃도어를 착용하였다. 작업복 색상은 검정과 남색 등 어두운 색을 주로 착용하였다. 동작 시는 엉덩이, 무릎 등이 당기고 상의가 올라가 허리가 나오거나 바지 뒤가 당겨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작업복은 통기성, 흡습성, 신축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기능성, 활동성, 디자인, 작업효율성, 쾌적성 등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작 분석을 통한 작업복 패턴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농촌(rural), 작업복(workwear), 선호도(preference), 기능성(functionality)

I. Introduction

의복의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작업 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복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농업은 과거로부터 우리 생활의 근본이 되어 온 작업으로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었으나 여전히 인간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종사자는 호미나 낫과 같은 작은 연장에서부터 인체에 유해한 농약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작업복은 인체에 착용되면서 작업환경과 간밀하게 상호 작용하며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특수 의복으로, 재해 발생과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준다[1].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 작업능률 향상에 적합한 작업복 개발을 위해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복 착용실태 및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농촌의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촌 작업복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추출하고자 한다.

II. Study Methods

1. Subjects

본 연구의 대상은 전남지역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60대 32명(31.4%), 50대 27명(26.5%), 70대 18명(17.6%), 30대와 40대 각 8명(7.8%), 80대 7명(6.9%), 20대 2명(2.0%)으로 총 102명이다.

2. Organization of the Questionnaire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작업복 착용실태, 작업복의 필요 기능, 작업복의 선호도, 인구통계학적 변인 등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Study Methods

본 연구는 설문지법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4일까지 전남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직접 기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직접 기표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자가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Data Analysis

조사 자료의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III. Results

1. Wearing Behavior of Workwear

작업복을 매번 착용하는 경우는 77명(75.5%)이고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을 때는 트레이닝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48명(47.1%), 아웃도어를 착용하는 경우가 22명(21.6%)이었다. 작업복 구매장소는 시장이 66명(64.7%), 의류매장 20명(9.6%)의 순이었다. 작업복 교체주기는 한 계절에 한번 구매하는 경우가 65명(63.7%)로 가장 많았다. 작업복 색상은 검정 28명(27.5%), 남색 19명(18.6%)으로 어두운 색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 Disadvantages of Workwear

동작 시 불편부위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엉덩이가 당긴다는 보통을 제외하면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29명(28.4%)으로 많았다. 쪼그려 앉을 때는 엉덩이가 당기는 경우가 37명(36.3%), 무릎이 당기는 경우가 34명(33.3%)으로 많았다. 팔을 들어 올릴 때는 팔이 당기는 경우가 24명(23.5%)으로 많았고, 팔을 구부릴 때는 팔꿈치가 당기는 경우가 30명(29.4%)으로 많았다. 상체를 앞으로 굽힐 때는 상의가 올라가 허리가 나오는 경우가 42명(41.2%)으로 많았고 바지 뒤허리가 당겨 내려가는 경우도 19명(18.6%)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엉덩이나 허벅지가 당기는 경우가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상의 사이즈에 따른 불편부위는 팔을 들어올릴 때 등부위가 당기는 증상과 상체를 구부릴 때 겨드랑이가 당기거나 바지 뒤허리가 당겨 내려가는 경우가 큰 사이즈를 착용하는 경우 작은 사이즈를 착용하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의 사이즈가 큰 치수를 착용할 때 쪼그려 앉는 동작에서 밑위가 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3. Dissatisfaction with Textiles

작업복 소재에 대한 불만족도를 살펴보면, 바람이 인통해서 31명(30.4%), 땀흡수가 안되어서 22명(21.6%), 옷이 잘 늘어나지 않아서 34명(33.3%)으로 많았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오염성이 50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축성 46명(45.1%), 견고성 28명(27.5%), 통기성 26명(25.5%)의 순이었다.

4. Workwear Functionality

작업복의 중요기능으로는 기능성 48명(47.1%), 활동성 38명(37.3%), 디자인 32명(31.4%), 작업효율성 26명(25.5%), 쾌적성 23명(22.5%)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작업복에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기능으로는 통화기능 59명(57.8%), 체온유지 31명(30.4%), 방수기능 29명(28.4%), 음악기능 28명(27.5%)의 순이었다. 작업복 이외에

착용하는 보조 장비는 장갑이 84명(82.4%)으로 가장 많았고, 모자 66명(64.7%), 팔토시 64명(62.7%), 작업화 43명(42.2%)의 순이었다. 작업복에 휴대하는 물품은 휴대폰이 91명(89.2%)으로 가장 많았고, 장갑 47명(46.1%), 가위 35명(34.3%), 열쇠 31명(30.4%)의 순이었다. 작업복의 편리한 소매단과 바지단은 오픈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작업복 착의실태 및 중요시하는 기능 등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이 국한되었고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작 분석을 통해 작업복 패턴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CKNOWLEDGEMENT

Following are results of a study on the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Projec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REFERENCES

- [1] G. Park, & H. Bae, “A study on the working clothes in the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Considering clothing performance and motion factors in work pla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2, No. 10, pp. 1571-1583, Oct., 2008. DOI: 10.5850/JKSCT.2008.32.10.1571